

돌아온 부상 주전... "쌍수 환영"

하반기 레이스 천군만마 전력 KIA 나성범·kt 강백호 '출격' 김선빈·이의리 가세 KIA 든든 삼성 백정현·박병호 컴백 임박

프로야구가 2025시즌 하반기 일정을 17일 시작한다. 12일 올스타전을 마치고 휴식기를 이어 온 10개 구단은 이날 경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레이스에 들어간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장기 레이스에서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치명적일 수 있다.

반대로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 있던 주전 선수들의 복귀는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부상 복귀를 손꼽아 기다리는 팀들이 꽤 된다.

가장 대표적인 팀은 KIA 타이거즈다. KIA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절대 1강'으로 불렸으나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때문에 중하위권을 전전했다.

지난 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이 다리 근육 부상으로 두 번이나 자리를 비운데다 나성범·김선빈·이의리 등의 부상 공백이 컸다.

다행히 KIA는 나성범·김선빈·이의리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팀 전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호 KIA 감독은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이었던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김도영은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성범, 김선빈, 이의리는 하반기 시작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반기 내내 7~8위권에 머물던 KIA는 6월 이후 대반격에 나서 이달 초 한때 단독 2위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한화에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부상병들의 복귀는 다시 흐름을 되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A에 0.5경기 뒤진 kt wiz에서는 강백호의 복귀가 예상된다.

강백호는 5월 말 두산 베어스와 경기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 이후 경기에 나오지 못했다.



KIA 나성범이 4월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5회 말에 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래 7월 말 복귀가 예상됐으나 빠른 회복세를 보여 당초 일정보다 이르게 1군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t는 또 불펜의 손동현도 어깨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다가 하반기 출격을 준비 중이다.

전반기 마지막 NC 다이노스와 3연전에서 전패를 당한 삼성 라이온즈는 왼손 불펜 백정현, 거포 박병호의 복귀가 기대된다. 백정현은 전반기 평균자책점 1.95, 2승 1세이브, 3홀드로 활약했고, 박병호는 6월 말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리다가 내복사건 부상 때문에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다만 백정현·박병호는 7월 말은 돼야 경기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LG 트윈스는 내복사건 통증으로 빠진 오스틴 딘이 8월 초 정도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롯데 자이언츠는 윤동화·손호영·구승민이 이달 말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작년 파리올림픽에서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한 신유빈(왼쪽)과 임종훈.

연합뉴스

'혼합복식 신설' LA올림픽 6개 金 걸린 탁구 '부푼 꿈'

남녀 단식·남녀 복식·혼복·혼성단체 등 6개 금메달 달려 복식 강세 한국에 유리... 경기는 29일까지 LA컨벤션센터

2028 로스앤젤레스(LA)올림픽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탁구연맹(ITTF)이 세부 경기 일정을 공개하며 LA 올림픽에서 탁구가 갖는 의미를 부여했다.

ITTF는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탁구는 LA올림픽 기간인 2028년 7월 1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보름간 LA 컨벤션센터 3번홀에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탁구가 세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러지는 건 처음이다. LA는 앞서 1932년과 1984년 올림픽을 개최했고, 탁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2028년 LA올림픽에선 작년 파리 대회 때의 남녀 단식과 남녀 단체전, 혼합복

식 5개 종목에서 남녀 단체전이 폐지되는 대신 남녀 복식이 부활하고 혼성단체전이 신설돼 총 6개 종목이 진행된다.

ITTF는 "탁구가 천사의 도시(LA)에서 데뷔한다"면서 "모든 라켓 종목 중 금메달 수가 가장 많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활하는 남녀 복식의 마지막 금메달 리스트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중국의 마린·천치(남자복식), 왕난·장이닝(여자복식) 조였다.

복식에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로선 LA 올림픽이 좋은 기회다. 남자복식의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레소) 조는 최근 열린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최상급 대회인 미국 스매시 결승에서 세계 1위 형제 콤비인 펠릭스 르브렁-알렉시스 르브렁(프랑스) 조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호나우지뉴·메시... 다음은 야말

스페인 축구의 '초신성' 라민 야말(18·사진)이 세계적인 명문 클럽 FC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의 새 주인이 됐다.

스페인 라리가의 바르셀로나 구단은 17일(한국시간) "야말이 다음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등번호 10번을 단다"고 발표했다.

야말은 바르셀로나와 2031년까지 계약 연장에 서명한 이날 후안 라포르타 구단 회장으로 부터 등번호 10

이 새겨진 유니폼을 받았다.

지난달 바르셀로나는 내년까지였던 야말과의 계약을 203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야말이 지난 13일로 만 18세가 되자 이날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바르셀로나는 "41번을 달고 1군에 데뷔했고, 27번으로 빛을 발했으며, 19번으로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면서 "이제 10번을 달고 자신의 기준을 높일 때"라고 야말의 등번호에 의미를 부여했다.



맛있는우리말200

눈으로 읽고 입으로 즐기는 우리말! 일상 속 다양한 표현에 풍미를 더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막상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답변을 내기 전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다양한 일상의 언어를 주제 삼아 우리말 어법을 넘나들며 두서없이 우리말 산책을 떠나보려고 나섰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게 또한 글이다. 잘 쓴 글은 읽는 이에게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래서 글은 마음으로 쓴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마음으로 써서 감동을 주는 글이라 해도 기본 어법에 따라 쓴 글이 아니라면 결코 잘 쓴 글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글에도 품격인 '문격(文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필자로서 그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 프롤로그 중

박재역 지음 | 272쪽 | 17,000원 | 글로벌콘텐츠